

열대풍토병에 관하여

광견병

○ 뇌에 침범을 받는 무서운 질병으로서 개나 들짐승이 감염되며 사람이 병든 짐승에 물리게 되면 전염되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열대지역에서 발견되는 질병이기도 하며 잠복기는 보통 10~100일인데 때로는 1년 후에 발병하기도 한다.

초기에는 기분이 좋지 않다가 발



열과 더불어 호흡곤란이 오고 병상이 진행됨에 따라서 경련이 생기며 물까지도 마실수 없게 되고 적은 자극에도 경련을 일으키며 공포, 미친 상태로부터 마비 상태로 되었다가 죽게 된다.

○ 물었던 동물을 관계기관에 의뢰해서 광견병 감염 여부를 알아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앵무새병

○ 동남아시아, 중미, 남미에 많으며 온대지방에도 앵무새, 카나리아, 비둘기, 오리 등에 의해 감염된다.

○ 증세는 잠복기 6~15일이며 돌발적으로 오한, 인후통, 두통, 구역질, 배부통이 생기므로 불면증, 식욕부진, 39℃ 전후 고열등이 1~2주 계속되며 폐염을 발병한다.

○ 치료 및 예방은 테트라사이클린 또는 아크로마이신을 1일 20mg씩 4~5일간 복용한다.

유해동물에 의한 상해

성게, 해파리, 산호(자독어류)

바다에 생식하는 동물중에는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있으므로 맨손으로 잡는다든지 맨발로 밟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전갈, 지네, 노래기, 거미류

이상의 동물중에는 유독한 것이 적지 않다.

전갈은 유행성으로 실내에 침입해서 가구, 신, 의복 등에 침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용전에는 반드시 사전 점검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개미, 벌류

이상은 유독한 것이 많으므로 야외에 갈때는 이들의 서식처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개미나 벌 등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모래벼룩

아프리카, 중남미 등지에서 널리 서식하고 있어 맨발로 생활하고 있는 현

주민의 대다수가 감염되어 있다.

발가락 사이 또는 손톱 밑 등에 침입하여 통증이 있는 종창을 만들기도 한다. 맨발로 걷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독사

열대지역에서 독사에 물렸을 경우가 가장 무서운 것이다. 지역에 따라서 독사의 종류도 다르므로 서식지에 들어갈 때는 그 지방 토착민들의 주의를 듣든가 안내인을 구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항독소를 휴대하고 다니는 일이 제일 중요하며 어느 종류의 뱀에 효과가 있는 것인지 사전에 확인 해 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되겠다.

최근 중화나 해독용의 응급처치 세트가 시판되고 있다.

뱀에 물린 다음 바로 입으로 상처(물린 부위)를 빨아 주는 일도 응급처치의 하나가 되겠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입안에 염증이 있는 경우는 오히려 위험하니 이점을 유의해 두어야 한다.

